

다음주일 무지개축제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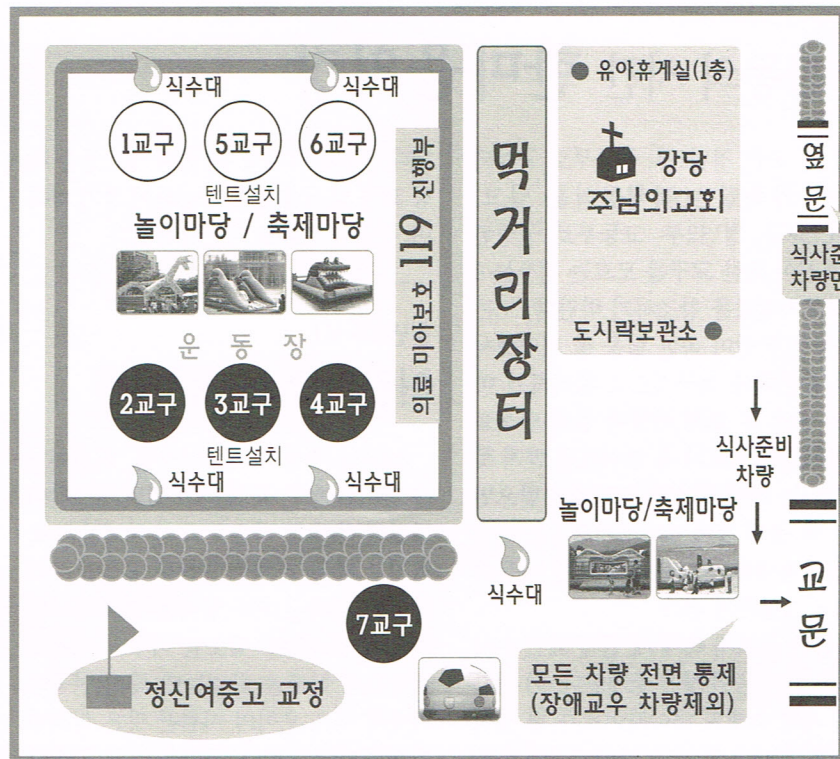
한마음팀은 흰색상의, 한가족팀은 붉은색 상의를

(한마음팀 : 1,5,6교구, 청년1부, 중등부 / 한가족팀 : 2,3,4,7교구, 청년2부, 고등부)

연합예배는 10시

주차는 종합운동장으로

드디어 다음 주일(16일) 주님의교회 두 번째 무지개가 떠오른다. 무지개 축제는 전체 4부로 나뉘게 되는데 이중 1부 순서인 예배를 소개한다. 기존 4번 드리던 주일예배를 2번만 드리게 된다. 1부예배는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기존에 주일예배를 드리던 시간대에 동일하게 드러진다. 꼭 기억할 것은 행사도움미, 청년운영스텝, 교직원, 먹거리마당 관계자 등 행사 진행 요원들은 반드시 1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점이다. 2-4부 연합예배는 10시부터 11시까지 대예배실, 중예배실, 소예배실, 자모실, 유아실, 식당에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린다. 고등부는 중예배실, 중등부는 소예배실에서 영상으로 연합예배를 함께 드린다. 연합예배가 마치면 한가족의 장이 곧바로 이어진다. 오전 11시부터 오후1시까지의 시간으로, 2부는 연합예배 이후 11시부터 운동장과 교회 건물 주변에서 각종 먹거리마당, 놀이마당, 축제마당이 동시에 진행된다. 먹거리마당은 작년에 비해 2배 정도 더 많은



▶ 무지개 축제 행사장 안내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점심 식사는 구역별로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구별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구역끼리 밥을 찾아 구역별로 식사하면 된다. 혹 해

당교구를 모르는 경우는 3면 도표를 참조하여 본인의 교구를 찾기 바라며, 구역원간의 식탁교제가 아름답게 진행되길 바란다. (3면에서 계속)

이벤트보다는 근본적인 투자와 부모의 변화를

청소년사역 공개강좌

지난 주일(5월 2일) 오후 1시 30분 1층 소예배실에서 비전팀과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소년사역 공개강좌가 열렸다. 강사는 20년전부터 '십대들의쪽지'를 발행한 김형모씨였다. 이날 강연에는 교회학교 교사, 비전팀 뿐만 아니라 청소년사역과 자녀교육에 관심있는 100여명이 참여하였다. 김형모씨는 강연을 통하여 그동안 받은 청소년들의 편지들을 인용하면서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역설하였다.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가 청소년들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청소년사역은 기본적으로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하였다.

(2면에서 계속)

미국연수팀 7일 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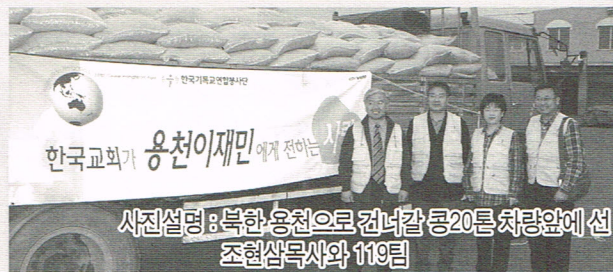
성백술장로를 단장으로 조직된 10여명의 교회학교의 미국연수팀이 7일(금) 오전9시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교역자로 김현령 교육전임전도사가 동행하였다. 이번 연수일정은 미국 시카고의 윌로우크릭교회와 아와나분부를 방문하고,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는 WCA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것 등이며, 17일 귀국할 예정이다.

압록강을 건너 사랑의 콩

1만달러 콩20톤, 한국에선 8만달러는 쥐야 살 수 있어

4월 29일, 주님의교회 119구 호부 부장 한정웅 집사와 팀원 박형기 집사, 통역을 담당했던 김삼화 집사는 교회의 위탁을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담은 만달러를 가지고 룽천 참사 현장과 제일 가까운 중국 단둥으로 향했다. 중국 사정을 잘 알고 중국어 통역도 가능한 김삼화 집사는 목사님의 특별요청으로 이 팀과 동행하게 되었다. 4월 29일 오후, 팀 일행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드디어 중국 단둥에 도착했다. 한국기독교 연합봉사단 단장인 조현삼 목사를 만나 룽천 사고현장과

한 상세한 소개를 들었다. 조현삼 목사의 소개를 통해 우리 교회의 결정이 얼마나 적절하고 현명했는지 알게 된 그 순간 주님의교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 느낌이 들었다. 조현삼 목사의 말에 의하면 참사 발생 후 국내에서 많은 단체들이 라면이나 물과 같은 구호물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지의 상황과 필요에 맞지 않는 물품들이라고 하였다. 룽천은 샘물의 생산지이기 때문에 물을 한국에서부터 운송해 온 것을 보면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라면도 이미



사진설명 8북한 용천으로 건너갈 콩20톤 차량앞에 선 조현삼목사와 119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라면으로 식량을 대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주님의교회에서 지원하는 콩은 중국정부에서 유일하게 제지시키지 않는 농산물이고 영양가치가 높은데다가 우리전통 음식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피해민한테는 가장 실용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더욱 뿌듯한 것은 성도들이 지원한 1만달러로 중국에서 콩을 20톤 구입 할 수 있었다. 이것을 한국의 시세와 비교하

다면 20톤의 콩을 한국에서는 8만 달러를 지불해야 살 수 있는 많은 양의 지원물자였다. 구호물자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현지인과 연결하는 것도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번 일에 앞뒤로 뛰면서 도와준 중국현지인 배사장은 한국기독교인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말을 계속 중얼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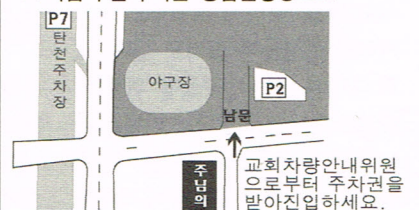
(3면에서 계속)

양육 프로그램 소개

초심의 마음 가지고 QT를 배워요

QT는 1882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몇몇 학생들이 자신들의 경건을 위해서 하루 중 일부를 성경읽기와 기도로 보낸 데서 유래 된다. 하루 중 시간을 따로 정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 보이지만 생각만큼 만만한 일이 아니다. 특히 초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일인지 매우 난감한 일이기도 하다. (3면에서 계속)

※ 다음 주일 주차는 종합운동장으로



금강산도 식후경 아닌가?

무지개축제의 별미, 먹거리장터 준비모임



사진설명: 먹거리장터 준비회의 모습

5월 16일 무지개 축제를 성대하고 은혜스럽게 치르기 위해 먹거리장터 부원들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7개 교구 권사와 담당 윤덕영 목사님과 함께 5월 2일 15시30분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

에서 각 교구의 메뉴를 결정하여 푸짐하게 먹거리 장터가 되도록 결의하였다. 각 교구의 메뉴는 다음과 같다.

제 1교구: 옥수수(500개) 과일(200접시) 제 2교구: 왕만두(200개) 전빵(200개) 제 3교구:

도토리묵(200접시) 김밥(300개) 떡(100접시) 제 4교구: 떡볶이(300접시) 컵라면(200개) 제 5교구: 장터국밥(300그릇) 제 6교구: 닭코치(600꼬치) 제 7교구: 어묵(500꼬치) 순대(300접시) 고등부: 음료수, 솜사탕 도시농어촌 봉사부: 유기농 농산물(농어촌교회 생산품)

(1면에 이어서)

이벤트보다는 근본적인 투자와 부모의 변화를

청소년사역 공개강좌

이벤트보다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투자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청소년문제는 근본적으로 부모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면서, 부모들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청소년 리더를 양성하는 비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와의 협력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비전팀은 다음 일정으로 5월 25일과 26일 자체 1박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제천에 있는 간디학교를 방문하고, 또 그 동안의 논의를 발전시켜 앞으로의 청소년사역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아동부 레인보우 어린이주일

정영환목사, 한줄로 늘어선 아이들에게 안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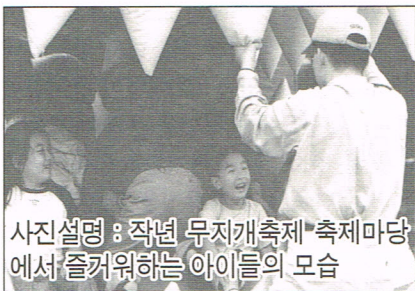
5월 2일은 어린이주일인 만큼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교사들은 어린아이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예배가 시작되고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울동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높였다. 그 후에 릴레이 공굴리기 게임을 하였다. 커다란 공을 서로 자신이 하려고 손을 드는 모습들. 또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짙막한 드라마를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제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성경구절을 근거로 만들었다.

통합아동부 정영환 목사가 방문해서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었다. 천진난만하고 장난만 칠 줄 알았던 어린아이들의 모습에서 사뭇 진지함이 느껴졌다. 미리 생각해두었던 기도제목을 목사님께 말씀드리는데 어린이 모습은 한없이 순수했다. 정영환 목사는 한 줄로 길게 늘어선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기도를 해주었다. 통합아동부 교사들은 앞으로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다.



사진설명: 정영환목사가 안수기도하는 모습

축제의 백미 한몸의장 감동의 시간 한마음의장



사진설명: 작년 무지개축제 축제마당에서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

무지개 축제의 백미는 단연 3부 한 몸의 장이다. 전교인 운동회로 진행되는데, 한 몸의 장은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운동장에서 진행된다. 우선 성화 봉송과 전교인 참여하는 에어로빅에 이어 전교인 미니 올림픽 성격을 띤 운동회 시간이 진행된다. 놀이 종류로는, 예사모 153마리의 기적, 노아의 방주에 초청받은 동물 커플, 여리고성 함락, 평안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들고 지구 7바퀴 반돌기, 영생의 열매 터뜨리기 등의 게임들을 통해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3부 한 몸의 장은 크게 한 마음팀과 한 가족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한 마음팀은 백색상의를 입

고, 1,5,6교구, 청년1부, 중등부로 구성되고, 한 가족팀은 적색상의를 입고, 2,3,4,7교구, 청년2부, 고등부로 구성된다. 자신이 속한 교구를 모르는 경우는 4면 교구지역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모든 성도들은 본인이 속한 팀을 잘 기억해서 팀별 운동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기 바란다. 예배 후 교회 마당에 팀별 인식표가 비치되어 있으니 혹 인식표를 받지 못한 성도는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받으면 된다. 한 몸의 장에서의 경기결과는 우승팀 참가자에게 합산되어 4부 한 마음의 장에서 시상하게 된다.

다음은 무지개 축제 세 번째 메인 순서인 4부 한 마음의 장을 소개한다. 이 시간은 무지개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4부, 한마음의 장은 대예배실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되어,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로 어울림과 진한 감동을 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청년부 위십, 유아, 유치부의 울동찬양, 양코르찬양, 초등부 찬양과 울동, 갈릴리화당, 청년부 중창, Shall We Dance, 희망의집 영상 편지, 경배와 찬양의 시간 등을 갖게

된다. 3부와 마지막 4부까지 성도들은 해당 교구 및 구역별로 자리하여 주기 바라며, 푸짐한 상품도 마련되어 있다.

청년2부 MT

어린이날 청계산등반

2004년 계절의 여왕인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갈 곳 없는(?) 몇몇 청년들이 등산에 나섰다. 서울 근교의 청계산을 목적지로 택해, 가벼운 등산로 코스인 옥려봉까지 올라갔다가 양재동 화물터미널 쪽으로 내려왔다. 담소를 나누고 사진도 찍으면서 산행을 하였는데 특히 산꼭대기에서 먹은 오이의 시원한 맛은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등산을 마친 후 식사를 맛있게 하고 차와 게임을 즐기는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산과 꽃과 바람과 하늘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좋은 공동체와 나눔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 하루였다고 한다. 청년들은 앞으로 이런 짝짝 모임들을 통해 청년공동체 간에 더욱 다양한 나눔을 기대하고 있다.

교회 새롭게 나온 친구 29명 초등부 친구초청 잔치 열어

초등부는 5월 2일 친구초청잔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무려 29명의 새 친구들이 초청되어 나왔다. 신나게 찬양하고 나사로의 이야기를 인형극으로 들었다. 모두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었다. 예배 후에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캐릭터 인형들과 놀기도 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다. 전 날인 5월 1일에는 10여명의 교사들이 아주초

등학교 앞에서 초청하는 노방 전도를 하였다.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며 전도에 게을렀던 것을 회개하였다. 청년 교사들은 일주일 전부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성전 꾸미기도 모두 손수 하였다. 모두 은혜 충만한 멋진 하나님의 잔치였다. 더 많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의 부흥이 초등부에 있을 것이다.

청년1부 MT

2일간의 속초 모꼬지, 어린이 같은 순수함으로 돌아간 시간

청년 1부는 '어린이날'을 맞아 속초로 무박 2일 모꼬지(엠티)를 떠났다. 올해 새가족으로 주님의 교회에 하나가 된 많은 청년과 고등

부에서 올라 온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었다. 이런 좋은 뜻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전날까지 비를 내려 하늘에 뿌연게 떠다니는 먼지를 씻어주셨다고 말하는 청년도 있다. 5일 새벽에는 '개기월식'의 모습까지 볼 수 있었기에 최고의 날씨가 더없이 고맙게 느껴졌다. 2부까지 합쳐 50여 명이 참여했다. 대부분 수업을 마치거나, 퇴근 후에 바로 와야 하는 시간상의 번거로움이 있었음에도 열띤 호응이 있었다. 출발은 무리를 나눠 이뤄졌다. 우선 선발대는 미리 도착해서 다음날 일정에 해당하는 장소를 고르고, 후발대 버스가 도착하고 바로 저녁을 먹도록 식사준비를 했다. 모두가 도착한 시간은 5일 오전 12시가 넘어서였다. (4면에서 계속)

오늘 기도



아버지...
다른 이의
허물을
온유한 심령으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년부 야외 그림 그리기

하나님의 창조세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담아 전시



초등부는 5월 2일 친구초청잔치 시간을 가졌다. 이 날 무려 29명의 새 친구들이 초청되어 나

왔다. 신나게 찬양하고 나사로의 이야기를 인형극으로 들었다. 모두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었다. 예배 후에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캐릭터 인형들과 놀기도 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나눈 귀한 시간이었다. 전 날인 5월 1일에는 10여명의 교사들이 아주초등학교

앞에서 초청하는 노방 전도를 하였다.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며 전도에 게을렀던 것을 회개하였다. 청년 교사들은 일주일 전부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성전 꾸미기도 모두 손수 하였다. 모두 은혜 충만한 멋진 하나님의 잔치였다. 더 많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의 부흥이 초등학교에 있을 것이다.

(1면에 이어서)

압록강을 건너 사랑의 콩

1만달러 콩20톤, 한국에선 8만달러는 쥐야 살 수 있어

오후 4시경, 중국 내지에서 구입한 콩 20톤을 실은 대형화물트럭이 임시로 임대한 화물창고에 도착하였다. 한정웅 집사와 박형기 집사는 현지 노동자와 함께 20톤의 콩을 특별통행 허가를 받은 다른 화물차에 옮기는 일에 몸을 아끼지 않았다.

4월 30일,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조현삼목사 일행과 주님의교회 구호팀 일행은 현지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국 교인들의 사랑을 담은 콩을 압록강 건너편의 동포들에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아무런 의식도 없었지만 그들은 정성들여 화물차에 “한국교회에서 통천 재해민에게 전하는 사

랑”이라고 쓴 프랭카드를 눈에 띄게 걸어 놓았다. 그들의 정중한 표정과 세련된 솜씨에서 한국 기독교인의 뜨거운 정열과 소망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콩은 기독교인의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었다. 이 콩은 교인들의 정성을 담은 주님의 진실한 사랑이었다.



사진설명 : 용천에 보낼 콩을 나르고 있는 모습

무지개축제 100% 즐기는 법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선, 5월 16일 무지개축제때는 교회에 올 때, 복장부터 백색상의(한 마음팀)와 적색상의(한 가족팀)를 입고 오는 것이 좋다. 1,5,6교구, 청년1부, 중등부는 백색상의를 입고, 2,3,4,7교구, 청년2부, 고등부는 적색상의를 입고 오면 된다. 또한 자신이 속한 교구는 다시 한번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아래에도 표로 지역별 해당 교구를 소개한다.

- 1교구: 강동구, 송파구 가락,문정,오금,거여, 마천,방이,성내,풍납,신천동
- 2교구: 송파구삼전,석촌,잠실,잠실본,송파동
- 3교구: 도봉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노원구,중랑구,남양주시,구리시
- 4교구: 광진구,성동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중구,종로구,은평구,일산
- 5교구: 강남구 대치,도곡,개포,수서,일원동, 성남시 분당구,용인시(구정),수지
- 6교구: 강남구 압구정,논현,청담,삼성,역삼,

신사동

7교구: 서초구,금천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 영등포구,관악구,동작구,과천시,안양시,의왕시,수원시

또한, 무지개 축제 4부 순서에는 행사를 마무리하는 큼직한 시상식과 행운권 추첨이 있다. 4부 한 마음의 장에 들어갈 때 이전에 받은 것을 끝까지 잘 간직하는 것, 잊지 않는 것이 좋다. 3부 한 몸의 장의 판정결과와 한 마음의 장에서의 결과를 합하여 구역별, 팀별로 시상한다. 행사 중 응급 치료나 미아 찾기, 그 외 긴급한 용무가 있는 분은 본부석에 위치한 119센터를 찾으시면 된다. 또한, 행사당일 장애인교우 차량을 제외한 모

든 차량은 교내에 주차할 수 없다. 모든 차량은 종합운동장 주차장으로 주차 바라며, 먹거리 준비차량과 구역별 식사준비차량은 구역장 모임 때 미리 나누어드린 식사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에 한하여 교내로 들어올 수 있고, 이후 주차는 종합운동장으로 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행사 진행 동안 나무를 비롯한 학교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 구역별 식사가 끝나면 식사한 자리는 깨끗하게 청소해 주길 부탁드린다. 식수대(운동장에 8곳), 유아휴게실(1층 고예절실), 도시락보관소(1층 친교실)는 미리 준비되어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노란색 상의를 입고 있는 진행요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사진설명 : 작년 무지개축제 전교인 운동회 시간에 놀이에 몰입하는 어린이들의 모습

(1면에 이어서)

양육 프로그램 소개

초심의 마음 가지고 QT를 배워요

그러다 보니 하루 이틀 미루다가 포기하기 쉽상이다.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정희성 목사의 지도로 '생명의 삶'을 교재를 통해 말씀묵상 즉,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과 행위에 대해 여러 방법론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도록 하는 데에 있다. 특히 정희성 목사의 묵상 노트를 공개함으로써 방법이나 깊이 있는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시간에는 나눔의 시간이 있어 서로의 말씀묵상을 나누기도 하여 은혜를 받고 도전이 되기도 하며 교제의 시간도 갖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빚어 간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선 앞에 나를 세워 순종의 그림자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부담이 되어 낙담도 많이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주시는 목사님의 지도로 모두 자리를 찾아 가고 있다. 말씀묵상을 하는데 있어 낙담하고 있다면 이 모임에 함께 해보는 것을 권한다.

유치부, 가면극과 미니 운동회 열어

어린이주일에 유치부에서는 “나는 하나님 나라 어린이예요”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렸다. 전 날 미리 예배실을 풍선과 리본으로 예쁘게 장식하였고, 당일 천사로 분장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맞아 주었다. 말씀시간에는 교사들이 준비한 가면극을 공연하였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재능이나 노력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것이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가면 뒤에 숨은 선생님이 누구인지 찍이나 궁금해 하던 호기심 어린 아이들의 표정들. 마무리

는 하트모양의 시트지를 아이들의 가슴에 붙여주면서 “예수님이 ○○를 사랑하신대”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도 하였다. 2부 순서로 예배 후에 미니 운동회를 가졌다. 김지수 교사의 진행으로 터널을 지나 징검다리를 건너 후 사탕을 먹는 게임을 했다. 교사들은 경쟁에서 이기기보다 규칙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였고 돌아가는 아이들에게 교회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작은 가방을 선물하였다. 유치원은 어린이 주일 행사를 즐겁게 보내 모두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1면에 이어서)

다음주일 무지개축제 개막

한마음팀은 흰색상의, 한가족팀은 붉은색 상의를

이 시간 먹거리장터는 계속 준비된다. 7개의 코너로 구성된 먹거리마당에서는 교구별로 장터국밥, 옥수수, 과일(수박), 왕만두전빵, 순대, 오뎅, 닭꼬치, 떡, 떡볶기, 컵라면, 도토리묵, 김밥, 아이스크림, 냉/온커피,음료수, 주스류, 솜사탕 등을 구품을 통해 구입하여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다.

운동장에서 계속 진행되는 놀이마당은 청년부에서 준비한 14개 코스의 놀이마당이 준비된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축구놀이인 월드컵 2006, 야구공 던지기인 나도 박찬호, 여러명이 함께

호흡을 맞추어 뛰는 단체 줄넘기, 훌라후프를 이용한 저 유연해요, 다트를 이용한 행운을 던져라, 주님과 공굴리기, 천생연분, 양파링, 공 굴리기유, 바벨탑쌓기, 제비 뽑기, 무지개 유격대, 불발탄, 제기차기 등의 재밌는 놀이들이 놀이마당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함께 놀이마당에 참여하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진행되는 축제마당은 11개 종류의 에어 바운스가 운동장에 설치된다. 기린, 축구돌, 보트, 기차, 돌고래, 악어, 장애물1,2,3,4, 바이킹 바운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재미는, 놀이마당과 축제마당에서는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간단한 선물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참여한 코너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선물을 모으는 재미도 솔솔 할 것이다.

1. 설만한 물가 오픈

1층 친교실 자리에 카페 『설만한 물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맛있는 차와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세례예식 안내

유아세례식이 5월 12일(수)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있으며, 청소년 세례·입교식이 6월 20일(주)에 있습니다. 세례교육은 5월 23일(주)부터 시작됩니다.

3. 자원봉사자 모집

주일 새벽에 식당봉사할 남자성도와(문의 강은애 권사 016-281-4390), 꿈나무공부방 피아노 교사 자원봉사자 4명(문의 한정웅 집사 010-8001-1144) 모집합니다. 함줄함울편집부에서 교회신문 함줄함울의 취재기자, 혹은 편집기자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또한 영상미디어부에서는 교회행사시 영상촬영, 영상편집, 예배실황중계및 녹화 등의 영상미디어 자원봉사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이창현 목사 011-466-4736)

4. 교회내 모임 안내

- 3여선교회 모임이 5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과천 서울대공원 분수대앞에서 있습니다.
- 5여선교회 월례회가 5월 12일(수) 오전 10시 영아부실(지하1층)에서 있습니다.
- 무지개축제 정리분과 안전담당 요원 전체회의가 오늘 오전 11시 15분 4층 소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중등부 학부모 간담회

5월 23일 주일 오전 10시 40분 1층 소예배실에서

중등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주님의교회 중등부에 자녀를 둔 학부모와 함께 2004년 상반기 중등부 운영과 방향에 대한 설명회 및 반별 담임교사와 학부모간의 상견례 시간을 갖고자 한다. 간담회 시간은 5월 23일(주일) 오전 10시 40분이며, 장소는 1층 소예배실(중등부 예배 장소)이다. 아무쪼록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가정에 귀한 선물로 허락된 자녀들의 신앙 지도에 대해 교사와 함께 생각하며 고민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7-16구역 영흥도MT

구역모임과 화력발전소 견학까지

지난 5월 4일(화)부터 5일(수) 목요일에 과천에 사는 교우들이 인천시 옹진군에 있는 영흥도에서 자체 수련회를 가졌다. 해마다 MT를 하고 있는 과천구역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보내었다. 마침 중학교의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이어서 중학생들 자녀들도 모두 참석했다. 7교구 16구역인 과천 구역은 이날 모두 9세대에 교구 이호목사가가족까지 총 10세대 자녀들까지 33명이 참석하였다. 구역장 윤성진 집사는 민족독립투사가 33명이었듯이, 오늘 우리 33명도 구역과 교구를 위해 만세를 부르며 할렐루야를 제창하였다. 영흥도에는 세계최장 해상송전로를 통해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영흥도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그 영흥도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황인형 집사가 안내하여 발전소를

탐방하였다. 그날 참석한 교우들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간시설에서 불철주야 수고하며 국민을 위하는 분 중에, 우리 구역 집사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며, 모든 구역식구들이 자랑스러워하였다.



(2면에 이어서)

청년1부 MT

2일간의 속초 모꼬지, 어린이같은 순수함으로 돌아간 시간

청년부 한 식구가 인터넷 곳곳을 헤매 찾았던 작은 마을 한 칸에 자리잡은 아름다운 펜션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도착하자마자 숯불로 고기와 고구마를 구워먹으며 타오르는 연기 속에 모두들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아침에는 근처 바닷가로 나가 일상을 떠난 기분을 만끽했다. 바다에 발을 담근 채 물장구를 치기도 하고 물수제비 장난을 치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돌아오는 길에 시원스레 뿜어져 나오는 동안 버스 안에서 피로를 풀려고 했던 친구들은 채 깊은 잠에 빠지기도 전에 교회로 돌아왔다. 이번 모꼬지를 통해서 많은 이가 '어린이같은 순수함'으로 몰랐던 친구들과 우정을 쌓아가고 또 그런 마음으로 늘 주님을 만나는 계기를 만드는 청년으로 일상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지낼 것이다.

무지개사진관 순간의 선택이 추억의 질을 좌우한다!

무지개축제 2부 행사인 「한가족의 장」에 가족과 친구, 연인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신영숙집사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손길이 머물 이곳은 찾는 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의 장소를 만들어 줄 것이다. 『무지개 사진관』으로 개장을 하게 되는데, 무대장식이 아주 이채롭다. 자연과 함께 풍선으로 세밀하게 디자인한 배경이 2곳이며, 본인이나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서 별도 제작된 공룡의상을 착용하여 그들만의 작품을 연출할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찍을 수 있는 배경이 있고, 친구나 연인이 혹은 개인이 특별한 이미지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배경을 설치했으며, 3-4명의 전문적인 사진가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잘나온 사진으로 현상을 해서 본인에게 직접 나누어 준다. 혹 개인적으로 사진 이미지를 소유하고 싶은 사람은 E-mail을 적어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보내 준다.

나도 한번! 솜씨발휘를 해볼까? 풍선아트코너

무지개 축제 「한가족의 장」에 풍선아트코너가 신설된다. 이곳은 15분단위로 6-7개의 다양한 풍선강습회가 1시간 30분 동안 연속적으로 실시된다. 현승필집사를 중심으로 전문강사진들이 강의를 맡고, 말로만 듣던 다양한 풍선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시간마다 다양한 종류의 풍선 강습이 실시되므로 원하는 시간대에 참여하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교회학교 소속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면 더욱 의미가 새로울 것으로 기대된다.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1. 정기 예배 (주일)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2. 정기 예배 (주중)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8시 ~ 9시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30분 ~ 9시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3.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썩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

4.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대금(500원)은 구제에 쓰입니다. 잊지 마세요.

5.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입니다.

7. 친교실(1층) 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주일 및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